

■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20)

## 인락기생(人樂其生)

사람들은 그 삶을 즐겼습니다

권 중 달(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우리 사회에서는 역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듯하다. 최근에 있었던 것 만 추려 보아도 친일파 논쟁, 대한민국 정부수립문제, 하다 못해서 4.19, 5.16, 5.18의 역사평가에 대한 문제까지 각자의 입장에서 주장을 하는데 그 논쟁에서 결론은 나지 않은 듯하다. 왜 그럴까? 평가의 기준이 달라서일 것이다. 그려면 서로 다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동의하는 평가 기준은 없을까?

속자치통감을 읽다가 요대(遼代) 흥종(興宗) 시절의 소한가노(蕭罕嘉努, 韓家奴)라는 사관이 내세운 평가기준의 이야기가 눈에 들어 왔다. 그는 평가의 기준을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만족하는 삶을 누렸는가에 두고 평가한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역사평가는 백성을 편에서 한 것이다. 이러한 기준이면 어느 시대에 적용해도 웬찮을 성싶다.

그는 요조(遼朝)의 한립도림아(翰林都林牙)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국사(國史)를 편수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으나 그는 사관(官史)이었다. 원래 사관은 황제 절대권이 인정되는 시대에 나타났다. 황제가 절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황제가 자칫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같아서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음을 알았던 것이다. 아무리 절대권을 가진 황제라도 브레이크를 잡는 경제장치가 없으면 사고를 일으키게 되고 그 사고의 크기에 따라서 황제 본인을 넘어서 왕조조차도 무너지게 하였던 경험이 만들어 낸 제도일 수도 있다.

소한가노는 사관이어서 황제인 흥종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하고 있었다. 그런데 흥종이 어느 날 주산(秋山)에 사냥을 갖다가 곰과 호랑이가 나타나는 바람에 따라 갔던 사람 수십 명이 다치거나 죽는 사고가 일어났다. 그동안 사관 소한가노는 사냥을 좋아하는 흥종에게 사냥을 조금 줄이라고 간언(諫言)을 했지만, 이 간언을 안 듣고 사냥을 나갔다가 사고를 만난 것이다. 소한가노는 이 흥종의 실수를 역사책에 기록하였다.

흥종은 자기의 이 실수를 되도록 덮어보고 싶었다. 소한가노를 불러서 이 기록만은 좀 지워달라고 부탁했다. 소한가노는 황제의 앞이라 하는 수 없이

그 자리에서는 지웠지만 나와서는 다시 기록해 두었다. 며칠 지난 다음에 흥종은 소한가노가 지우라고 한 것을 다시 썼다는 것을 알았다.

이 사건은 자기의 치부(恥部)이기에 기록을 삭제해달라고 부탁하였건만 다시 기록한 것을 알았으니 무척 화를 낼만도 한데, 그는 오히려 “사관(官史)이 쓰는 것은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사관의 직분을 충분히 인정하였다. 그러나 꽤 웬찮은 황제였다.

이러한 흥종이 어느 날 소한가노에게 물었다. “우리나라가 창업(創業)된 이후로 누가 현명(賢明)한 군주였는가?”라고 물었다. 흥종은 내심 자기를 보고 “폐하께서 제일 현명하십니다.”라고 대답해 주기를 기대한 것일까? 그러나 소한가노는 의외의 대답을 했다. 목종(穆宗, 931~969)입니다.”라고 한 것이다.

목종은 요를 건국한 야율아보기(耶律阿保機)의 손자이다. 흥종은 목종의 뒤로 경종(景宗)과 성종(聖宗)을 거쳐서 황제가 된 사람이나 전임 황제들의 행적을 잘 알았던 터여서 소한가노의 대답에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바로 반문한다. “목종은 술을 좋아하였고 기뻐하거나 화내는 것이 정상(正常)이 아니었으며 사람을 초개(草芥)처럼 보았는데 경(卿)은 어찌하여 그를 현명했다고 말하시오?” 마치 소한가노가 역사가로서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하면서 말한 것이다.

소한가노가 대답하였다. “목종은 비록 포학(暴虐)하기는 했지만 요역(徭役)과 부세(賦稅)를 가볍게 덜어주었으니 사람들은 그 삶에서 즐거움을 가졌으며 목종의 시대가 끝나기 까지 아직 허물할 것이 없었습니다. 근래에 주산에서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많았으나 신(臣)은 그러한 연고로 목종을 현명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흥종은 잠자코 있었다.

역사는 과거의 역사를 평가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 법이다. 소한가노는 제왕의 개인적인 성격을 가지고 보려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넓게 ‘백성들의 삶’에 기준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이다. 비록 목종에게는 단점이 있었지만 목종시절의 사람들은 ‘그 삶을 즐겼다.(人樂其生)’고 하면서 목종을 제일

현명하다고 한 것이다. 평가의 중심을 ‘백성’에 맞추어져 있었는데 흥종은 소한가노가 지우라고 한 것을 다시 썼다는 것을 알았다.

여기서 소한가노가 제시한 역사평가의 기준은 ‘사람들이 그 삶을 즐기었는지 아닌지’였다. 황제가 절대 권력을 누릴 시절이었고 황제가 곧 나라였던 시절이었으니 평가의 기준을 황제가 편안한지 아닌지에 둘 만도 한데, 소한가노는 아무 힘없는 백성의 삶에 기준을 두었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러한 소한가노의 이야기를 읽다 볼 때 드 병자호란 때 김상현 등의 말이 떠올랐다. 그는 오랑캐 청나라와 화의하느니 차라리 나라를 잃더라도 명(明)에 대한 사대하는 의리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외쳐댔다. 그가 평가하는 기준은 대명(對明) 의리(義理)였지 백성이나 왕조의 안위(安危)는 아니었다. 이 덕분에 그 후에 안동김씨는 세도정치를 하면서 오랫동안 권세를 누렸다. 백성과 왕조를 버린 대가로 얻어진 엄청난 보상이었다. 백성을 가치의 중심에 두지 않고 영화를 누린 분명한 경우이다.

그런데 요즈음 정치권에서는 ‘용비어천가’를 노래하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언론에 오르내린다. 요즈음은 용비어천가를 부를 만큼 멋진 시대로 보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무엇을 기준으로 그러한 평가를 했을까? 실업자는 계속 늘어가고, 앞으로 닉칠 경제난은 상상하기 조차 힘든 상황이라고 예고하고 있으니, ‘백성’들을 기준으로 부른 노래는 아닌 것 같다.

상상해 보면 선거에서 ‘여당의 압승’을 두고 한 말인 듯하다. 백성의 안위에 앞서서 자기편의 승리에 도취한 것일 듯하다. 제대로 되었다면 힘을 물아줄 터이니 우리 백성들이 삶을 즐길 수 있게 해달라는 뜻을 알아차렸어야 했다. 그래서 무거운 책임감에 뼈를 깎는 자세로 동분서주해야 할 터였다. 그러나 주마가편(走馬加鞭)의 태도는 옳겠지만 ‘용비어천가’ 같은 칭송은 맞지 않는다. 사실에 맞지 않는 칭송은 간신(姦臣)의 입에서나 나오는 말이다. 즉간(側姦)은 제거되었으면 좋겠는데, 두고 볼 일이다.



김효진 신임 태사묘관리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태사묘 송보당에서 관리위원회 상견례 및 회의를 하고 있다.

석자 전원이 돌아가면서 자기 소개를 했다.

김효진

김씨로 나이가 많고 향렬(行列)이 높아 위원장에 천거(薦舉)되었는데 앞으로 태사묘를 위해 열심히 일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태사묘관리위원회의 유동 및 고정 자산, 비품 9종, 문서 36권, 보물각내의 보물 22점, 태사묘현판 등 각 현판 15점, 고서, 문서 등 각종 업무를 인수인계했다”고 보고했다.

기타 토의에서 도유사(都有司) 및 재유사(齋有司) 순환문제, 태사묘 홈페이지 계속 운영, 동재, 서재 환경정리, 송보당 바단 정비 등을 논의했다.

회의를 마치자 코로나 때문에 식당에 가지 않고 송보당에서 도시락을 불러 점심식사를 한 후 헤어졌다. 태사묘관리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이다.

2020년도 태사묘관리위원회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김효진 △부위원장 권용주, 장기용 △감사 김재현, 권영화, 장은주 △사무국장 장수식 △위원 ◆안동김씨 권영건, 권양호, 권오식, 권기원 ◆안동장씨 김시일, 김정동, 김국한, 김수원 ◆안동장씨 강병선, 장우진, 장희덕 △별유사 김형동, 권기식, 장상섭.

보도부장 권영건

## 정조공파 노하문중 화재 입은 조상 산소 복원 및 고유제 봉행

지난 4월 24일부터 3일간 일어난 안동시 남후면 일대 산불로 인하여 많은 산림자원은 물론 민가와 가축사, 농사용비닐하우스, 농작물, 농기계 등이 잿더미가 되는 피해를 입었다.

조상들을 모신 많은 산소 또한 화재의 재난에서 피할 수 없었다. 정조공파 노하문중에서는 이번 산불로 인하여 입향조(후자증자) 지하 13기 묘소가 산불 피해를 입은 바 지난 5

월 6일 문중(회장 권년환) 후손 10여명이 참여하여 불에 탄 묘소에 남은 재를 싸리비로 쓸어내고 새 흙과 벗집(잘게 썰어서)을 분묘에 뿌리는 등 정성을 다하여 복원하였다. 복원을 마치고 후손들은 주과포를 차려놓고 현관 권년환 회장이 헌작하고 권인접 전 파종회장이 독고유를 하는 등 고유제를 봉행했다.

문중회장과 참제원 모두는 읊복례를 하면



서 앞으로 묘소관리에 더욱 정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더 나아가 문중원의 알찬 단합을 약속하였다.

정조공파 회장 권영택

## 부호장공파종회 코로나로 경로잔치 취소

부호장공파종회(회장, 권영건)는 5월 6일 오전 10시 30분 안동시 어가골길(태화동) 일원정(一源亭)에서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제례위원장, 사무국장 등 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로잔치에 따른 긴급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일(定日)인 오는 5월 20일 개최할 예정이던 제67회 경로잔치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모였다.

권태옥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권영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로 때문에 경로잔치를 부득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요즘은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코로나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회의에선 이달 중순부터 국내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도 모임에서는 안심할 수 없으며 경로잔치 때는 종원 참석율도 극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경로잔치를 부득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또 부호장공파의 숙원사업인 사당(祀堂) 건립 건은 진지한 토의를 하느라 많은 시간



을 가졌다. 운영위원들은 사당 건립을 위해 사당건립주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전국에 있는 부호장공파 족친들에게 알려 자금조달 등 건립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검토하기로 했다.

긴급회의를 마친 참석자 전원은 시내 송현동 우덕식당으로 이동, 불고기와 절심식사를 한 후 헤어졌다.

보도부장 권영건

## 세무법인 회인

대표세무사: 권혁창(權赫昶) (010-3680-5057) 복야공파36代

### 업무내용

1. 세무업무 신고대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원천세
2. 세무업무 기장대리
3. 세무 상담 및 세무컨설팅
4. 재산세 관련 세무 상담 및 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5. 법인설립(창업), 기업합병 상담

### 본사

서울시 강서구 발산로 40  
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 501,2호  
Tel) 02-2640-6565  
Fax) 02-2640-6569  
근무세무사: 권혁창, 정부해

### 동부지점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률 업무동 10층 15,16호  
Tel) 02-3435-6565  
Fax) 02-3435-6568  
근무세무사: 정대성, 김병재

### 강원지점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 5  
Tel) 033-375-7768  
근무세무사: 김인섭

## 가나기획



대표 권혁준 02)741-7191~3 / 010-5281-7191

집안 어른들께는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습니다.